



“봉사가 별건가요...나누고 어울려 사는거지”

23년째 ‘사랑 실은 노래봉사단’ 운영 김효중 단장



지난 9일 광주시 남구 귀일원에서 열린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500회 특집공연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에서 김효중 단장이 장애인들과 어울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매달 80만원씩 월급 털어가며 쌓은 공연 500회

정신나간 놈 소리 들었어도 관객 기뻐하면 잊혀

“여러분, 박수를 안 치시면 우리가 힘이 안 나요. 오늘 즐겁게 공연할 수 있도록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환호성이 많이 내 주세요.”

지난 9일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장애인 공동체 귀일원은 흥겨운 음악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사랑실은 노래봉사단’(단장 김효중·이하 봉사단)이 방문해 추석맞이 500회 특집공연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을 펼쳤다.

김효중(58) 단장의 익살스러운 멘트와 함께 가수들이 부르는 구성진 트로트, 형형색색 옷을 입은 안무팀이 선사하는 댄스는 자리에 모인 약 200명 장애인들을 웃음바다로 빠뜨렸다.

김 단장은 공연을 마치고 “지난 1993년 봉사단을 꾸리고 귀일원에서 첫 공연을 연 후 500회를 맞아 다시 찾아오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23년 동안 많은 게 변했다. 30대 중반이었던 김 단장은 환갑을 앞둔 나이가 됐고 단원들도 장애인들도 함께 나이를 먹었다. 변하지 않은 건 진정성이었다.

“장애인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순수한 마음은 여전해요. 공연이 재미있으면 웃고 재미 없으면 찡그리죠. 그래서 매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담양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적부터 노래부르기를 좋아했다. 혈혈단신 광주로 올라온 그는 어렵사리 KT에 입사했다. 삶이 안정되니 숨어있던 ‘까’가 꿈틀거렸다.

각종 트로트 가요제나 콩쿠르에 나가 상을 휩쓸었다. 1992년에는 광주 MBC노래마당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

해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수상자들 끼와 재능이 아까웠던 김 단장은 봉사단을 창단하게 된다.

“처음에는 ‘정신나간 놈’ 소리를 들었죠. 매달 70~80만 원씩 월급을 쏟아부으며 봉사했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심했던 아내도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 결국 찬성을 하더군요.”

그는 혼자서는 봉사단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군소리 없이 재능기부를 하는 봉사단원들, 매번 도움을 주는 후원자들. 지난 2005년부터는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 장으로 재임하며 무등가요제를 만들어 지역 가수들을 발굴하고 봉사단원으로 발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봉사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몇가지 철칙이 있었어요. 특히 시간 약속 엄수와 실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중하는 단원들은 가져없이 내줬어요. 아마추어들이지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운영비 문제로 퇴직 전까지만 봉사단을 운영하려 했던 김 단장은 내년에는 법인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더이상 사비를 예전만큼 내놓을 수 없으니 다른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봉사단을 처음 꾸렸을 때와는 달라진 인심에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다.

“귀일원 등 복지시설을 들르면 방명록을 가끔씩 뒤져가 봅니다. 예전에는 한참을 넘겨야 했던 방명록이 요즘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봉사란 게 별 것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만 나눠주면 돼요.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후원 문의 010-2684-60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30년째 신발 기부 대영신발유통 김양태 대표

복지시설·미화원 등 매년 1000켤레 기부

힘들게 살아보니 베푸는 것 아깝지 않아

지난 10일 오후 광주시 북구 각화동 김양태(62) 대표의 사무실에 한 수녀가 찾아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잠시 귀국한 그 수녀는 김 대표에게 현지 아이들의 딱한 사정을 설명했다. 선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흔한 슬리퍼도 없이 맨발로 생활하면서 다치기 일쑤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슬리퍼를 보내고 싶는데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30년 넘게 신발 도매업을 해온 김 대표의 대답은 간단했다. “요즘 아이들 신발을 팔지 않아 당장 드릴 수 없지만 곧 구해서 연락드릴게요.”

김 대표는 자신이 파는 신발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다. 매년 아름다운가게와 애육원 등 복지시설에 1000켤레 이상의 신발을 기부하고, 겨울이면 해진 신발을 신고 청소하는 미화원들에게는 따뜻한 털신을 선물하고 있다.

미혼모와 독거노인들에게 생필품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도 그가 하는 일이다. 그는 선행을 펼치면서도 낯 내놓지 못하는 무뎠한 성격 때문에 한때 ‘얼굴 없는 신발 전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 대표가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한 지는 꼬박 30년이 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나눠준 신발이 몇 켤레인지, 또 얼마인지 굳이 기억하지 않는다. “빛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발 장사꾼이 신발 좀 주는 게 뭐가 그리 기억할 일”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다만 2만 켤레는 족히 될 것이라는 게 김 대표와 오랜 세월 인연을 맺어온 지인들의 설명이다.

화순이 고향인 그도 먹고살기 바빴던 적이 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운 형편 탓에 중학교도 마

치지 못했다. 그리고 16살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 굶지 않기 위해 신발공장에서 배달과 허드렛일을 했다.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겨우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맘껏 일한 끝에 서른 살이 될 무렵 신발가게를 냈다. 배고파서 선택한 일이 평생 직업이 됐다.

점자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하니 돈을 버는 것만큼 잘 쓸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고픈 시절의 서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넘길 수 없었다.

힘들게 돈을 벌어난 탓에 자신에게는 항상 검소하면서도 베푸는 것만큼은 아깝지 않았다. 그런 성격 탓에 지인들의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 주고 떼이는 경우도 허다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었겠지. 그 사람들도 넉넉했으면 왜 돈을 빌렸겠어. 하나하나 기억해놨자 무슨 소용이야. 다 경험해 봤지. 이제는 100원을 빌면 100원만큼 잘 쓰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 내가 100억, 200억씩 갖고 있으면 뭐해. 죽어서 다 쪼아지고 갈 것도 아닌데. 맨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

김 대표의 회사인 대영신발유통은 직원들에게 정년이 없는 평생직장이다. 함께 고생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회사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몇 해 전에는 창업을 결심한 직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60이 넘으니 꿈이랄 것도 없지. 어려운 사람한테 내 것 좀 주고, 좋은 사람들과 술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낭만적이게 살고 싶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신발 등을 30년째 기부하고 있는 김양태 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NAVER - 정읍 구절초 축제 검색

네비게이션 주소 : 전북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



www.gujulcho.jeongup.go.kr

정읍 구절초 축제 제11회

2016. 10. 1.(토) ~ 10. 9.(일)
구절초 테마공원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 2016. 10. 1.(토) / 오후 4시

출연진 : 조항조, 최진희 등 (진행 : 전주MBC MC 김차동)

●구절초 꽃밭음악회 : 2016. 10. 1.(토) ~ 10. 9.(일) 매일2회 공연 / 오후1시, 4시

일 자	시 간	출연진	비 고	일 자	시 간	출연진	비 고
10. 1(토)	13:00~14:00	그룹 로머	통기타 라이브	10. 6(목)	13:00~14:00	서커스맨 리쑈	베에로 저글링 서커스 공연
	16:00~17:00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16:00~17:00	그룹 다섯소리	통기타 라이브
10. 2(일)	13:00~14:00	가수 이창희	초청가수 공연		13:00~14:00	나니레	퓨전크로스오버 국악
	16:00~17:00	그룹 휴먼스	어쿠스틱 밴드		16:00~17:00	가수 김연숙	초청가수 공연
10. 3(월)	13:00~14:00	가수 이경엽	통기타 라이브	10. 7(금)	13:00~14:00	가수 수니킴	통기타 라이브
	16:00~17:00	두피 앙상블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16:00~17:00	그룹	아카펠라
10. 4(화)	13:00~14:00	그룹 투가이즈 (two guys)	통기타 라이브	10. 8(토)	16:00~17:00	The Present	하모니 공연
	16:00~17:00	가수 오산영	통기타 라이브		13:00~14:00	하늘소리	오카리나
	13:00~14:00	빅포(big four) 제츠	제츠 공연	10. 9(일)	13:00~14:00	오카리나 앙상블	독주&합주 공연
10. 5(수)	16:00~17:00	가수 황나희	통기타 라이브		16:00~17:00	수와진	초청가수 공연

● 버스킹(길거리) 공연 : 2016. 10. 1. ~ 10. 9. (상시)

- 장소 : 만남의 광장, 코스모스 경관지 등 주요 공간 4개소

- 출연 : 수와진 등 인기 통기타 가수 공연

* 상시입장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 정읍시

주관 |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후원 | 한국수자원공사(심전강담관리단),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정읍산림조합